

# 인류와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 금호이엔지(주)

ESCO 최초로 녹색전문기업인증으로 인증받으며 한 단계 더 도약을 준비하는 금호이엔지(주). 금호이엔지(주)는 1999년 금풍전기공사로 설립한 이후 2004년 금호이엔지(주)로 사명을 변경하고 대표적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최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에너지통합관리 장치의 개발로 고객들의 니즈에 한층 발 빠르게 움직이며 더욱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금호이엔지(주)를 만나보았다. 글 편집팀



금호이엔지(주) 이임식 대표이사



###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기업

금호에너지(주)는 대구에 본사가 위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써 에너지진단사업, 수요 전력관리사업, 건물냉난방원격제어시스템, 에너지통합관리장치, 조명제어시스템, 고효율 조명사업, 에너지절약(ESCO)사업, 자동제어(전력감시, 배전자동화, 빌딩자동제어), 수배 전설비합리화, 동력 공사 등 전기·정보통신공사, 지능형 에너지통합관리장치, 신재생(태양광,지열)에너지개발, 스마트그리드 사업 등으로 에너지산업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절약(전기사용량 절감)에 앞장서 온 결과 2010년 8월과 9월 각각 지식경제부로부터 녹색기술,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이는 기업 전체 제품 기술에서 에너지절약제품이 30% 이상 돼야만 주어지는 인증으로 국내 ESCO업계에서 최초로 획득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2005년부터 에너지절감장치를 개발하여 정밀한 전력량 계측과 정확한 사용량 예측 알고리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전기에너지 절감 목표를 획득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건물에너지최적화시스템’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 녹색기술과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항상 개발과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객들에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

2011년부터는 에너지통합관리장치기능을 대폭 확대, 업그레이드해서 애플리케이션 접목 에너지통합관리장치(빌딩, 관공서,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용수, 온수 등 모든 에너지를 통합관리, 모니터링, 리포팅)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전력을 최대 60% 절감이 가능하고 밝기를 2배 이상 개선할 수 있는 등기구 세트(무전극, CDM, 고효율메탈, LED)를 개발 중에 있으며 보급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호이엔지(주) 이임식 대표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만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며 ESCO사업에서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러한 금호이엔지의 노력이 있었기에 2007년 에너지절약부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2008년 에너지절약부분 대구광역시 표창, 전력수요관리대상, 2009년 에너지진단부분 대구광역시 표창을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금호이엔지는 앞으로도 에너지절약 부분에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냈다.

### 최고에 도전하는 기업

금호이엔지(주)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인류사회에 기여한다”는 기업 모토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감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기업부설 에너지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해 에너지 통합관리장치 개발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차등제어전력관리시스템’과 ‘사용패턴인식에 의한 최대전력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특허 2건을 획득하였으며, 2010년 8월 ‘최대(Peak)전력제어’를 통한 건물에너지 소비효율 최적화 기술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술인증서와, 2010년 9



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 제27조에 의거 녹색전문 기업으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기술 개발과 더불어 다수의 국책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차세대 전기절감 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스마트그리드를 위한 스마트 빌딩 파워매니지먼트 시스템개발’, ‘IT융복합 SW 상용화 지원사업’,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 ‘건물냉난방 원격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 실시간 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에너지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임식 대표는 에너지분야의 기술개발과 함께 창의적이고 열린 기업 마인드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얘기했다.

금호이엔지는 2011년 지금까지 ESCO사업으로 전국 1000여 곳, 에너지통합관리장치를 전국 3000여 곳에 보급하였고 현재까지 연간 550억 원 이상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저력의 바탕에는 항상 개발과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 금호이엔지의 노력이 있었다.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접목한 에너지통합관리장치가 개발되어 업체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항상 개발과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발판 삼아 언젠가는 세계로 나아가는 최정상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금호이엔지는 외형을 키우기보다 작지만 차근차근 내실을 다지며 성장해 온 기업이다. 세계로 뻗어나갈 날을 기다리며 지금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에너지산업, 녹색산업의 밝은 미래는 우리 곁에 한 발 더 다가와 있다.